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률 축소

공정위, 감경기준도 구체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2배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률을 축소하고, 감경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및 감경률 축소,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이 골자다.

현재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에만 감경을 적용하고, 감경률은 30% 이내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타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 등 두 가지다.

기타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만 적용되도록, 감경률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은 앞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준금액이 2배 상향된다. 최근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안에서

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2배 높아진다. 법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면 기준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높아지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은 체계적으로 이뤄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올 하반기 농·축협 경영 전략회의

전북농협은 지난 13일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관내 92개 농·축협 (상임이사, 전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북 농축협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과 건전결산을 위한 경영전략 회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2019년 3월 13일 제2차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오재만 지도담당관이 공명선거 중점추진 방향 및 농축협 협조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전북검사국에서 '농축협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 사고미연방지 내부통제 강화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농촌지원단은 농협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자체협력사업을 소개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창의적 사업추진을 부탁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건전경영 달성과 공명선거 구현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의 초석"이며,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워,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김영구 JB금융그룹 (재)전북은행장은 "양기관의 3D프린터 산업 협력이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창의 융합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 3D 프린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재)전북은행장은 지난 14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3D 프린터 지원사업'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기술로 창의성 함양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군산대와 3D 프린터 지원 협약

JB금융그룹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14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3D 프린터 지원 사업'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구성희 교수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3D 프린터를 구매해 도내 중학교에 지원하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련 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운영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NH농협은행 인후지점 추석 '사랑의 쌀' 전달

NH농협은행 인후동지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은고을지역아동센터와 평안의집에 사랑의 쌀을 최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기정 NH농협은행 인후동지점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하는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집값 담합 처벌 검토 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

김동연 부총리 “투기·집값 잡는데 국민 협조에 달려” ‘9·13 대책, 세금폭탄으로 잡는다’는 지적엔 동의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온라인 카페나 아파트단지 모임 등에서의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heK**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차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세금 폭탄으로 집값 잡으려 한다”는 지적엔 반박했다.

그는 “9·13 대책에서 영향을 받는 중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며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뉴스1

이어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세대 중 중부세 대상은 2%”라며 “전국에 3채 이상이거나 서울 등 조정지역 내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전체 집 소유자의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정책이란 게 한번에 폐도난마로 해결할 수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미비하다면 신속 강력하게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민생, 특히 고용 문제가 어려운 것은 송구스럽지만 경제를 망했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을 피력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 전제한 뒤 “경기나 구조적 문제만으로 설명할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청와대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소통하지는 차원에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한전 정읍지사, 추석 전통시장 공급설비 점검

한국전력 정읍지사(지사장 김흥택)는 12일 정읍시 연지시장 등 시내 3개 전통시장(연지동·시기동 일대)을 방문, 시장 내 지중, 가공 전기설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전 정읍지사는 상가 다중 이용시설 주변 주요 공급선로 수전설비, 비상발전기 확보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며 설비 이상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흥택 한국전력 정읍지사장은 “다중 이용시설 대상 전기 안전 점검을 수시



로 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열화상진단 등 과학화 장비를 동원한 고장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